

석파정(石坡亭)의 경관변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spect of Landscape Change in Seokpajeong Garden(石坡亭)

이 원 호, 김 동 현, 김 재 응, 안 혜 인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Lee, Won-Ho · Kim, Dong-Hyun · Kim, Jae-Ung ·
Ahn, Hye-I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요약

본 연구에서는 석파정을 대상으로 소유주의 변경에 따른 시기별 경관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초기 석파정의 모습은 계류를 중심으로 하는 공간으로 주변의 수림대와 어우러진 자연경관이 확인되었으며, 대원군으로 소유 시에도 그 모습은 대부분 준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한국전쟁 이후 잦은 소유주의 변경과 서울미술관 정원으로의 귀속에 따른 경관훼손은 원형경관의 복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 서론

석파정은 조선후기 조성된 한양에 조성된 정원으로 예로부터 수려한 산수와 계곡을 배경으로 당시 상류층의 정원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이며, 한양에 조성되었던 수많은 정원이 소실된 현재 시점에서 그 희소성 또한 중요한 가치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석파정은 조선 후기 상류층의 정원유적이랄기보다는 서울미술관에 귀속되어 하나의 옥상정원 형태로 남겨져 있으며, 과거의 원형이 변질된 채 이어져 오고 있어 현재의 모습이 방문객들에게 자칫 원형으로 오인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석파정의 정원 조영 초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변화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조선 후기 대표적 정원에 해당하는 석파정의 원형 파악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석파정의 경관변화과정을 추적하기 위하여 변화의 주요시기를 분류하고 이에 대한 각 시기별 경관 특성을 고찰하였다. 대상지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석파정 조영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는 시기로부터 현재를 포함하였으며, 연구 자료로는 관련 고문헌 및 도상자료, 기사, 사진 등을 파악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석파정 경관변천의 시기설정

정원은 조영자의 개인적 성향이나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 따라 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짐에 따라

석파정의 경관변천과정을 살펴보는데 정원의 소유주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석파정의 소유주를 기준으로 변천과정을 살펴본 결과 3시기로 분류되었으며, 1기는 석파정이 정원의 형태로 조성되는 시기로 석파정의 실제 조영자는 김흥근(金興根, 1765-1832)이며, 『매천야록(梅泉野錄)』에는 삼계동 정자로 불렸던 김흥근의 정원이 흥선대원군의 소유로 이전되었다는 기록은 흥선대원군이 석파정을 소유하던 시기를 기점으로 2기로 분류할 수 있다¹⁾. 3기의 설정은 한국전쟁 이후 석파정이 고아원, 병원 등으로 이용된 이후 원형이 변질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미술관에 귀속되어 현재에 이르는 시기에 해당한다.

2. 석파정의 경관변천과정

1) 1기 : 김흥근 소유의 삼계동 정자

과거 석파정이 위치한 삼계동은 서울에서 가장 경관이 빼어난 경승지로 당시 시인·묵객들이 즐겨 찾던 곳이었다. 양의영(梁義永, 생몰년대 미상)의 『유북한기(遊北漢記)』에는 석파정의 빼어난 정원의 경관을 예찬하는 등 당시 사대부층의 화려한 상류문화로서 정원이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²⁾.

유북한기를 토대로 정원의 모습을 살펴보면, 정원의 공간구성은 내당과 외사, 곁채, 창고, 마굿간 등 다수의 건조물과 품천정(品泉亭), 월천정(月泉亭), 수류운재루(水流雲在樓) 등의 정자뿐만 아니라 수각의 형태로 조성된 별도의 정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위적으로 조성된 수계 외에 수경시설로는 담장으로 둘러친 경계부에 돌을 깎아 연지를 조성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한편 삼계동 정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추가적 자료로는 『소치실록(小癡實錄)』을 들 수 있는데³⁾, 창

문 밖 시내와 산으로 위요된 신선의 별장으로 표현한 바 있다. 또한 소치실록에서 나타나는 삼계동 정자의 공간 구성은 김홍근이 거처하던 외사, 월천정 등이 앞서 선술한 유복한기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두 문헌의 고증을 통해 당시의 경관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계에 인접하여 조성된 ‘육묘정(六茅亭)’과 ‘굽은 난간의 작은 정자’가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굽은 난간의 작은 정자 위치는 외사 서측의 오솔길과 계류가 접하는 곳에 위치한 수중 정자로 오늘날 중국식 정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삼계동 정자의 주요경관시설로서 수경시설을 통한 수계의 도입을 들 수 있으며, 계류를 따라 다수의 정자를 조성하는 공간구성 상의 특징이 확인되었다.

식물의 사용은 기화요초가 정원에 가득하여 대문에서부터 향기가 가득하였으며 울창한 숲이 우거진 공간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특히 『유관집(遊觀集)』에는 삼계동 정자에서 조망되는 단풍나무를 소재로 하는 시문이 전해지고 있어⁴⁾ 계류에 인접하여 단풍나무를 비롯한 수림대가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2기 : 대원군 소유의 석파정

김홍근의 삼계동 정자가 대원군 소유로 이전됨에 따라 그 성격이 정원 기능뿐만 아니라 왕가의 별장 형태로 사용되었는데, 석파정도병풍에는 대원군 소유의 석파정을 표현하고 있어 당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석파정도병풍에서의 석파정은 백악산을 배경으로 계곡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원의 전면으로 수계가 통과하는 형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해방직후 발간된 서울시사의 기록⁵⁾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일제강점기까지 주요 경관요소로 사용되는 수계의 형태가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석파정의 건조물은 총 8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김홍근 소유의 정원 내 조성된 다수의 건조물을 준용한 형태로 보인다.

석파정은 대문을 기점으로 마당이 있고 오른쪽에 넓게 두른 곳이 사랑채에 해당하며 마당에서 단을 조성한 ‘口’자 형태의 안채와 그 뒤쪽으로 가장 높은 곳에 별채가 후원과 함께 조성되어 있다. 앞마당에서 왼쪽 협문을 통해 진입하도록 조성된 석파정 별당은 중국식 건축물로 후면에는 방지원도가 조성되어 있으며, 별당과 인접하여 그려진 소나무는 오늘날 석파정 사랑채 서측에 위치한 노거수로 보여진다.

3) 3기 : 잦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근대의 석파정

근대에 이르러 석파정의 공간변화는 서울미술관의 건립전후를 기점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서울미술관 건립 이전의 석파정은 흥선대원군 실정 후 후손에게 이어져왔으나 한국전쟁 이후에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코름 바고아원’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시아식’병원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멸실 위기에 처했던 석파정 별당채를 1958년 소전 손재형 선생이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1960년대 이후에는 개인이 석파정을 매입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이 빈번하게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관

리소홀로 이전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으며, 1997년 석파문화원에서 석파정 일대를 다시 매입하였으나 석파정이 정매에 부처지는 등 훼손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석파정은 근대에 들어 점차 원형이 변질되었으며, 다수의 건조물은 현재 4동만이 남아있다. 또한 담장으로 둘러진 공간과 진입공간, 석파정 동측 일대의 지형 등이 소실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이후 2012년 석파문화원에서 서울미술관의 건립과 함께 석파정을 공개했는데 진입 동선이 미술관 건물로 연결되고 기존의 대문채가 사라지는 등 미술관의 부속정원의 성격을 지니게 되면서 추가적인 원형의 변질이 발생된 채 이어져오고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석파정을 대상으로 정원의 소유권에 따른 공간의 특성을 시기별로 분류하고 관련 문헌 및 도상자료, 기사, 사진 등의 분석을 통해 각 시기별 변화양상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석파정의 경관변천과정의 시기구분은 초기 삼계동 정자를 조영하는 시기가 1기에 해당하며, 이후 정원의 소유권이 대원군으로 이전됨에 따라 왕족의 별원 형태로 이용되는 시기를 2기로 분류하였다. 3기는 석파정의 원형이 변질되는 시기로 한국전쟁 이후 고아원, 병원 등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며 서울미술관 부대시설의 하나로 포함된 현재까지를 포함하였다.

둘째, 김홍근 소유의 삼계동정자는 계류를 중심으로 정원의 영역을 한정하고 수경관을 주요 조망지점으로 다수의 건조물과 정자를 경영한 시기로 볼 수 있으며 중국 풍 정자 및 별당채의 도입 등 외래문물의 수용양상과 함께 기화요초를 다수 식재하였다.

셋째, 석파정도병풍에서 나타나는 대원군 소유의 석파정은 기존 삼계동 정자의 건조물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이며, 별당채나 방지원도 등의 시설이 표기되어 있어 원형복원을 위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넷째, 근대의 석파정은 잦은 소유주의 변경에 따라 이전시기에 비해 상당부분 원형에 훼손되었고 지형이나 수계뿐만 아니라 건조물 또한 일부만이 남아있으며, 서울미술관의 부대시설로 전락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의 석파정의 모습이 상당부분 변질되었고 석파정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밝혀진 기록이 매우 한정적인 시점에서 문헌을 통해 과거의 원형을 살펴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원과 무관한 성격의 시설 및 공간을 대상으로 원형경관의 회복과 복원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1] 황현 저, 정동호 편저, 매천야록, pp. 22, 일문서적, 양주, 2011
- [2]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유산기
- [3] 허유 저, 김영호 역, 소치실록, pp. 99, 서문당, 파주, 2000
- [4] 김홍근 저, 유관집
- [5] 이원호, 김동현, 김재웅, 신현실 “19세기 서울 옥호정과 석파정을 통해 본 정원 특성”,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32권, 제3호, pp.21-31, 2014